

진안군, 촘촘한 방역관리 총력

진안고원시장 일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 갖고 안전점검 캠페인 실시

진안군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이 넘는 등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촘촘한 방역을 계속해서 실시한다.

9일 진안장날을 맞이하여 진안고원시장 일원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갖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했다.



진안군은 9일 진안장날을 맞이하여 진안고원시장 일원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갖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중점적으로 발생하던 분위기에서 비수도권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고, 진안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군민의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관련된 각종 홍보물을 배부하며 ▲마스크 착용 ▲손씻기 준수 ▲5인 이상 집합금지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등을 홍보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외부 유입을 막기 위해 터미널 이용객들에 대한 방역관리를 계속해서 진행한다.

군은 희망일지리를 통해 고용한 인력과 공무원을 활용해 발열체크 인원을 배치하고, 터미널을 통해 진안군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발열체크 및 안심콜과 수기 명부작성을 실시해 방문객들을 확인하는 등 코로나19의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피서철을 맞아 유명 관광지 및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에도 발

열체계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해 안전한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늦반딧불이 출현 실태조사

10월 1일까지 출현 지역 중심 출현여부·개체수 조사

무주군이 환경 지표표종인 반딧불이에 대한 보호육성과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2021년도 늦반딧불이 출현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출현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출현 시간대(일몰시간 1시간 전후)에 맞춰 출몰해 주변 환경과 출현 개체 수를 육안 조사한다.

군은 관내 늦반딧불이 출현 지역을 중심으로 늦반딧불이 출현여부와 개

체수를 조사하게 되며, 다량 서식지를 발굴해 서식지를 보호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군이 지난해 늦반딧불이 출현 지역 수를 조사한 결과 무주 26개소, 무풍 11개소, 살천 20개소, 안성 18개소 등 모두 102개 지역에서 반딧불이가 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제25회 무주반딧불축제 기간 반딧불이 신비탐사장소 발굴을 위해 오는 26일 무주군청 전공무원이 마을

담당관을 통한 전 지역 조사도 앞두고 있다.

기술연구과 이종철 과장은 "반딧불이 출현 실태조사는 서식지 발굴과 함께 반딧불축제의 중심 행사인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마중물이 될 중요한 사업이다"며 "이번 조사를 토대로 신비탐사 장소 발굴과 반딧불이 연구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8일부터 9일 동안 제25회 무주반딧불축제가 개최될 예정으로 반딧불이 신비탐사가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반딧불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접수(8.23~)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방역단계에 따라 참여인원 및 예약 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구제역 백신 수시접종 실시

장수군은 9일부터 구제역 예방을 위해 이달 20일까지 구제역 백신 수시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사슴 등 우제목류(발굽이 2개인 동물)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으로 치사율이 5~55%에 달해 가축들에게 치명적이

다. 이에 장수군은 관내 소 가축 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6차례 수시·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접종은 관내 소 4,668마리에 접종을 진행할 예정으로 50마리 미만 소 규모 농가는 농가 임회하에 공수의가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50마리 이상 가축사육 농가는 자율 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접종 완료 후 구제역 항체양성을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항체 양성률이 80% 미만이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차등 지급할 예정으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 농가들이 이익을 받지 않도록 문자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봉화터 발굴조사 자문회의 모습.

월곡리 봉화터서 출입시설 확인

장수군, 발굴조사 결과 봉화터 외곽 둘러싼 석축시설과 함께 발견

장수군이 월곡리 봉화터에서 삼국시대 만들어진 석축시설과 출입시설을 확인해 학계로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수군은 호·영남 화합과 상생의 장을 마련하고 장수가야 역사 재정립을 위해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전북 지역 가야문화유산 연구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발굴조사 기관인 전주대학교박물관과 함께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산11 일원에서 월곡리 봉화터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봉화터의 외곽 약 21m를 두른 석축시설과 규모 7m정도의 정연하게 다듬을 돌을 사용한 계단형태의 출입시설을 확인했다.

이번 발굴조사는 전북 동부지역 봉화터에서 처음으로 출입시설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월곡리 봉화터에서 출토된 유물 모두가 고대에 형성된 것으로 파악돼 앞으로 고대봉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수 군수는 "최근 발굴조사된 봉화터에서 장수지역 고대사회의 위상과 가치를 규명할 수 있는 유물이 발견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를 토대로 가야 역사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가야 문화유산에 대한 지원을 통해 유적들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치매환자 가족 '쓰담쓰담 자조모임' 운영

무주군이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역할을 키우고,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족 프로그램 '쓰담쓰담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무료로 운영되는 '쓰담쓰담 자조모임'은 주 2회(화·목) 무주군보건소의 원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가족을 대상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운영된다. 간호사와 외부강사가 각각 1명씩 투입해 교육을 진행하며, 다음달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쓰담쓰담 자조모임에서는 힐링 프로그램 운영하고, 어울림 교재를 통한 체계적인 정보전달 및 심리치유, 치매관련 정보를 제공해 치매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

또 자조모임을 통해 가족들은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신행동 증상 및 치매의 위험요인, 치매의 진단 및 치료와 관리, 마음 이해하기, 부정적 태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치매환자들과의 의사소통 방법을 학습하고 가족간 정서 및 정보 교류를 통해 우울감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은 이번 자조모임 운영을 통해 '치매 골든벨'을 비롯한 '우리 이렇게 해봐요', '그대 돌아보기', '스트레스 내려놓기' 등의 프로그램을 회기별로 진행한다.

보건행정과 치매안심팀 박인자 팀장은 "치매 환자의 심경을 가족과 함께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조모임 교육을 마련했다"며 "가족 간 치매관련 정보를 터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군은 교육을 마친 후에도 온라인 자조모임을 운영해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정보 교류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치매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환자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치매 가정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전북도진안군, 치어 3종 용담호·공공용수면 방류

진안군은 9일 전북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내수면 자연생태 환경 복원을 통한 어족자원 조성 및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치어 3종(붕어, 동자개, 쏘가리) 약 79만여 마리를 용담호 및 읍·면 공공용수면 21개소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붕어와 쏘가리는 관내 어업인들의 주 소득원으로 치어 크기는 전장 4cm 이상이며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합격한 검증된 종자이고, 민물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쏘가리는 전장 7cm 이상으로 고부가 가치 고급어종이며 어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을 주는 어종이다. 특히 쏘가리는 배스나 블루길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 퇴치에 유용하여 수산자원 보호에 유용하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방류행사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단 및 진안군어업계연합회원, 주민 등이 참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인삼산업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가져

진안군은 지난 6일 진안홍삼연구소 회의실에서 전북인삼농협·클러스터사업단·인삼작목반 및 농가 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안군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냉해, 폭염 등 이상기후에 따른 인삼가격 하락으로 인삼농가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 농가들의 어려움이 예상돼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인삼농가는 인삼재배 필요한 자재 확대 지원, 인삼직거래 장터 개최, 인삼수매 및 판로 확대 등을 군에 건의했으며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군은 사업 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진안군은 현재 진안인삼의 품질고급화와 안정적인 인삼생산을 위해 인삼연작피해방지를 위한 객토, 친환경 인삼자재, 차광망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2년부터는 인삼지주목 사업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